

## 외국 미술 저작권 문제 놓고 공방전 펼쳐는 출판계

저작권의 요율인하와 정당한 인용 범위가 쟁점

출판계가 미술 저작권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는 외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공문을 각 출판사에 보냈다. 이에 대해 출판계는 저작권 요율인하와 '정당한 인용'의 인정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양측의 공방은 한동안 출판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새해 벽두부터 출판계가 미술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외국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는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대표 홍성일, 이하 협회). 협회는 지난해 12월 7일 <예술 저작권 무단 사용 저작물 양성화 기준에 관한 공문>을 각 출판사에 보내 출판계를 압박했다. 이 공문에서 협회는 “새 저작권법이 발효된 2000년 1월 1일 이후 서점 또는 기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판을 사용한 저작물을 발견하면 해외의 저작권 협회와 함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를 주축으로 한 출판사들은 저작권 요율인하와 '정당한 인용'의 인정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저작권 요율 둘러싸고 이견 보여

협회의 홍대표는 “95년 1월부터 외국 도판 저작권 적용에 따른 공문을 각 출판사에 보내 새 저작권법을 숙지시켜왔다. 이미 대다수 출판사들이 새 저작권법에 따라 외국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출판계의 반발을 일축했다. 미술전문잡지를 비롯해 여러 출판사가 해외 도판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저작권료 지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출판사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월간미술>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저작권료로 매 호당 1천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어 잡지발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해외 부문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며 요율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출판인회의 국제교류위원회 고세현 위원장(창작과비평사 대표)은 “협회의 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 출판계의 현실을 감안해 현재 요율의 1/3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대표는 “저작권 적용 요율은 협회가 내리고 올릴 수 있는 사안 이 아니다. 협회는 국제저작권연맹이 적용하는 요율을 따를 뿐”

이라고 말했다

### 정당한 인용 범위 놓고 실전 벌여

요율문제와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인용'의 범위 문제. 출판계는 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도판 저작권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위원장은 “문학평론가가 시인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며 시를 인용하는 법은 없다. 미술작품도 정당하게 인용하면 무단으로 저작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용범위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 쪽당 그림이 절반을 넘지 않는 경우”라고 말했다. 글이 주가 되고 그림이 종이 되면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홍대표는 “쪽당 절반을 넘기지 않으면서 30쪽 책에 300장의 그림을 사용해도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우리 미



미술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와 출판계가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외국 도판을 사용한 미술전문도서들.

술 관련 책들의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출간돼 있다. 이제에는 그릇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한 출판사 대표는 조심스럽게 "아무리 정당한 인용이라 할지라도 상업성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판계 일각에서는 경제논리만이 문체를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즉, 미술작품은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문화논리를 앞세워 협회를 공박하는 것이다. 열화당 이기웅 대표는 "저작권료를 받는 저작권자 중에 자신의 작품이 한국에 소개되는지 여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느냐"며, "시장논리를 앞세운 협회가 인류 문화유산의 유통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대표는 "저작권 보호는 당연하다. 협회는 정당한 방법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도판전문 출판물과 단행본의 개념조차 모르는 우리의 출판행위가 오히려 유통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반박했다.

#### 해결책 찾기 위해 중지 모아야

출판관계자들은 이번 공방전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원론적으로 상업성 여부를 떠나 좀더 많은 독자들이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까지 무시하며 책을 출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뜻 어느 쪽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볼 수 없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한 출판인은 이 문제의 근원이 외국도서 출간에 따른 과당경쟁에

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출판계가 외국 저작권 계약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저작권료를 턱없이 높이는 우를 범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도판전문 책과 연구서 등을 구분해 저작권의 적용 범위를 분리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공방전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로의 이

해관계에서 한발씩 물러나면 의외로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을 듯하다. 출판계가 소모적인 공방을 주고받는 동안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독자들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 오완진 기자

## 문화부 2000년 출판계 지원사업

### 올해 총 228억 1천400만원 출판계 지원

새천년 지식정보화 시대의 서막을 열기 위해 올해를 '2000 새로운 예술의 해'로 지정한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는 출판계에 지난해보다 25억원이 늘어난 총 228억1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78억1천4백만원(99년 예산 61억7천1백만원). 사업별 지원 내역은 ▲만화출판산업 육성 지원 3억3165만원 ▲간행물윤리위원회 지원 25억2500만원 ▲우수학술도서출판 육성 지원 21억600만원 ▲국제도서전 한국관 설치 운영 1억원 ▲청주국제인쇄출판박람회 지원 25억5000만원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지원 1억3000만원 ▲대한인쇄연구소 사업 지원 7100만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문화관광부는 공공도서관 도

서구입비로 국고 46억원, 농어촌특별세 10억원 등 총 56억원(99년 4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산업진흥기금 100억원(99년 62억원)을 조성해 ▲인쇄시설 현대화 사업에 60억원 ▲서점시설 현대화 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하고, 공익자금 50억원(99년 70억원)으로 ▲한국출판금고 30억원 ▲한국출판연구소 5억원 ▲한국잡지협회(잡지금고) 15억원 등을 지원한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출판진흥법 제정을 위한 준비와 출판 유통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우수도서 추천 사업과 우수학술도서 발간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출판관련 사업으로 각종 문헌정보 목록을 DB화하고 공공도서관 12관의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새천년 문화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문화관광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오완진>

“진선출판사(주)에서  
다음과 같이 참신한  
인재를 뽑습니다”



#### 1. 모집 부문

모집 부문	응모 요건	연령
편집 디자인 0명	• 4년제 대학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매킨토시 편집 프로그램(QuarkXpress, Photoshop) 및 웹 디자인에 능숙한 자	1974년 이후 출생자
편집·컨텐츠 개발 0명	• 전공불문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매킨토시 편집 프로그램(QuarkXpress, Photoshop) 및 웹 디자인에 능숙한 자 우대	

#### 2. 제출 서류

- 이력서 (우측 상단에 항상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 기재)
- 자기소개서

#### 3. 모집 기한

2000년 2월 15일까지 도착분

#### 4. 모집 절차

서류 심사 후 2월 22일까지 면접일자 개별 통보

#### 5. 기타

급여는 회사 규정에 준함

#### 6. 접수처

- 우편접수 : 110-220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88번지 진선출판사
- E-mail : jinsunok@unitel.co.kr
- PC통신 : 하이텔 jinsun1  
유니텔 jinsun2

**진선출판사(주)**  
대표전화 (02)720-5990